

 국토교통부	보도자료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보다나온 정부
	배포일시	2019. 12. 26.(목) 총 3매(본문2, 붙임1)	
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서울세종고속도로팀 한국도로공사 건설처	담당자	• 팀장 이상옥, 사무관 윤한섭, 주무관 박제구 • ☎ (044)201-4130, 4135, 4132	
	담당자	• 처장 조주기, 팀장 진종근, 차장 이승원 • ☎ (054)811-3001, 3030, 3037	
보도일시		2019년 12월 27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6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서울~세종 고속도로 세종~안성 구간 27일 착공

- 행정중심복합도시 육성 위해 1년 조기착공...24년 개통 목표
- 통행시간 34분 단축(108→74분), 연간 7,404억 원 절감 기대
- 수도권-충청권 간 연계강화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경제 중심의 서울특별시와 행정 중심의 세종특별자치시를 연결하는 서울~세종 고속도로 세종~안성 구간(세종, 천안, 안성 및 청주 통과) 공사를 27일(금)에 착공한다고 밝혔다.

○ 세종~안성 구간은 2017년 7월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후 조속하게 설계를 추진하여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.

* 안성~성남 구간 : '17년 착공, 성남~구리 구간 : '16년 착공

○ 서울~세종 고속도로는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조기 구축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9.6조 원, 연장 128.1km, 왕복 4~6차로 신설노선이며, 앞서 착공한 안성~구리 구간은 2022년 12월, 이번에 착공하는 세종~안성 구간은 2024년 6월에 개통하는 것이 목표이다.

□ 세종~안성 구간은 세종분기점을 시점으로, 남안성분기점을 종점으로 하는 본선(55.9km)과 연기나들목에서 오송신도시를 연결하는 오송지선(6.2km)으로 구성된다.

○ 당진~영덕, 경부, 평택~제천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하여 기존 고속도로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고, 5개의 나들목(세종, 연기, 동천안, 서운입장, 금광하이패스)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고속도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할 계획이다.

* 나들목 명칭은 추후 관련기관 협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

□ 서울~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세종까지 통행시간은 평일기준 약 34분(108→74분) 단축되며, 경부선은 기존대비 12% (일 평균 1.4~2.5만대), 중부선은 20%(1.7만대) 내외의 교통량 감소가 예상된다.

○ 또한 통행시간 단축, 차량운행비용·환경오염·교통사고 감소 등 연간 약 7,404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 간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.

□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“이번 세종~안성 구간 착공으로 국토간선 도로망(7X9+6R)의 남북2축 지선을 구성하는 서울~세종 고속도로 전 구간이 본격적인 건설 절차에 진입”하였다면서,

○ “서울~세종 고속도로의 조기개통을 계기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서울세종고속도로팀 윤한섭 사무관(☎044-201-413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

서울~세종 고속도로 노선도

